

『조용한 미국인』에 표현된 동양 여성의 젠더 불평등

류다영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The Gender Inequality of an Asian Woman in *The Quiet American*

Da-Young Ryu
Division of Liberal Arts School, Jungwon University

요약 그레엄 그린(Graham Greene)의 『조용한 미국인』(*The Quiet American*)은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전쟁소설이다. 따라서 전쟁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색인종인 베트남인들보다 서양인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적 차별에 더하여 여성이 처한 이중적 차별과 불평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서양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바라는 베트남 여성 푸엥은 자본과 남성이라는 존재로부터 억압 받는 젠더적 약자이다. 그녀는 육체적 고통은 느낄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무지하게 표현되며, 남성들의 즐거움이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대로 묘사되는 등 남성들이 만들어낸 이기적인 시각으로 인해 불평등한 차별을 받고 있다. 젠더적 강자인 남성 주인공 파울러와 파일은 동양 여성인 푸엥을 서양인들과 질적으로 다른 저급한 인간 취급을 하며 단순히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을 이용하고 착취한다.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젠더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작품 결말부분에서 파일의 죽음으로 인해 푸엥이 파울러에게 돌아오게 됨으로써 동양 여성은 서양 남성에게 대한 젠더적 열위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

Abstract Graham Greene's *The Quiet American* is a war novel set in Vietnam. Thus, although war-related political stories are mainly unfolded, this novel presumes that Westerners are basically superior to the colored Vietnamese. In addition to racial issues, it describes the dual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that women face. Phung, a Vietnamese woman who wishes to live a rich and comfortable life through marriage to a Western man, is a gender underdog oppressed by the capital and males. She is discriminated against by selfish views created by men, such as being expressed as an ignorant woman who can feel physical pain but not mental pain and being described as a partner to satisfy men's pleasure. Fowler and Pyle, the male lead characters who are gender strong, treat the Asian woman as a low-status person who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Westerner and use and exploit the woman simply to satisfy their selfish needs. Therefore, it is hard to say that this story involves true love, as it is based on an unequal relationship. Eventually, Pyle's death brings Phung back to Fowler, confirming that Asian women are unable to escape from the gender underdog of Western men.

Keywords : Gender Inequality, Gender Underdog, Discrimination, Graham Greene, *The Quiet American*

*Corresponding Author : Da-Young Ryu(Jungwon Univ.)

email: modestar99@jwu.ac.kr

Received February 7, 2020

Accepted May 8, 2020

Revised March 6, 2020

Published May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국의 형이상학적 스릴러 작가인 그래엄 그린(Graham Greene, 1904-1991)은 사회적인 부패와 전쟁에서의 문제점 등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며 인간 사회의 추악한 면을 표현하였다. 우울하고 절망적이며 타락이 만연한 분위기를 주된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래엄 그린의 세계상은 그가 추구하고 있는 그 자신만의 세계, 즉 '그린랜드'(Greenland)로 특정 지을 수 있는데, 비평가들은 이 '그린랜드'를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악의 온상이며, 고통과 억압이 가득 찬 비극적 세계로 평가하고 있다[1]. 그의 작품이 이렇게 어두운 배경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선 그가 어린 시절부터 인간 삶에서의 악의 요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가 작품을 시작한 1930년대의 유럽과 미국의 경제 대공황과 세계 대전을 통해 고통을 받은 인간들의 내면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린의 정치적인 상황을 작품의 소재로 주로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인간이해와 사랑이라는 더 중요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2].

그린의 『조용한 미국인』(*The Quiet American*)은 1958년 조셉 맨키위츠(Joseph L. Mankiewicz)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가 되었으며, 2002년에 필립 노이스(Phillip Noyce) 감독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영화로 상영되었을 정도로 관심을 받은 소설이다. 소설이 출판되었을 때 많은 비평가들은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 하기 보다는 작품에 드러난 반미주의에 반감을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작품의 정치적인 부분과 전쟁 상황에 중점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두 남성 주인공인 영국인 토마스 파울러(Thomas Fowler)와 미국인 알덴 파일(Alden Pyle)의 정치적 성향과 인간 존재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하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베트남 여인 푸엥(Phung)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다. 사실이 소설은 전쟁 중 서양 백인 지배층과 동양의 식민지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인종적 편견을 포함하여 식민지 여성의 소외와 불평등한 대우 등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즉, 여주인공 푸엥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분석해보면 이 이야기는 강대국인 서양남성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식민지 국가의 동양여성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서양과 동양이라는 인종적인 차별이 존재하며, 또한 남성 위주 사회 속에서의 여성에 대한 젠더 불평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보

면 부차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베트남 여인 푸엥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여 그녀가 식민지 국가의 여성으로서 지배 세력인 서양 남성들에게 젠더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어떠한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서양 지배국의 남성들인 파울러와 파일은 푸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에게 푸엥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고, 파울러와 파일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젠더적으로 평등한 관계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1.2 관련 연구 및 이론적 배경

그래엄 그린의 작품 『조용한 미국인』은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여러 관점에서 분석되고 연구되었다. 강영돈은 작품에 등장하는 두 남자 주인공 파울러와 파일의 인물분석을 통해 그들의 이성적 삶을 알아보고 그들이 감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연구하였으며[3], 최근에는 작품 속 제국의 이중성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지성과 감성의 대립을 알아보고, 열강 세력들이 제 3세계에 정치적으로 개입한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는 연구를 발표하였다[4]. 조현애는 작품 속에서 제 3세계인 베트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특히 그래엄 그린의 다루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갈등을 서구인이 아닌 제 3세계인의 관점에서 다루었다[5]. 최재석은 이 작품의 중심 주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 인간의 고뇌라고 주장하면서 파울러의 고뇌에 초점을 맞추어 소설을 분석하였다[6]. 박안자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 관점으로 작품을 새롭게 읽고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는 서양의 작품을 비서양인의 입장에서 다시 읽음으로써 의식의 탈식민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7]. 그리고 황치복은 원작 소설과 각색한 영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소설과 영화에서 그린의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모색하였다[8]. 마지막으로 이준의는 파울러와 파일의 심층적인 인물분석을 통해 전쟁의 부조리함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알아보았다[2].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였으나, 베트남 여인인 푸엥에 입장에서 작품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를 이론적 근거로 삼아 새로운 방향으로 작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식민지국가 동양 여성의 이중적 차별

그린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나라들의 정치에 관심이 많아 그 지역을 여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그의 작품 소재로 사용하였다. 『조용한 미국인』도 그러한 작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용한 미국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실제로 그린이가 만났던 사람들을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비록 소설작품이기는 하지만 일어나는 사건이나 등장인물이 현실적 상황과 거의 일치한다[5]. 이 작품의 배경인 베트남은 제국주의 나라들의 쟁탈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며, 그러한 전쟁 속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제 3세계를 배경으로 쓴 그린의 소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서양 국가를 열등하고 무지하게 묘사하는 등 비서양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식민지를 지배한 백인들은 하얀 피부색과 유색 피부색 사이의 절대적인 차이라는 환상적인 이분법이다 선/악, 우월함/열등함, 아름다움/추함, 인간/동물, 정상/비정상 등의 의미를 실어 서양과 비서양의 부정적인 향으로 고정시킨다[9]. 이러한 인종적인 편견은 그린이가 여행을 하면서 타 문화에 대하여 진지한 호기심으로 글을 쓰기 보다는 타문화의 열등성 및 야만성을 강조하여 서구 문화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그들의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가 그의 자서전적 회고록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는 멕시코나 아프리카 등의 나라를 수십 년 동안 여행하면서 그 나라에서의 부패와 질병을 목격하고 그들의 무지하고 혐오스러운 문화를 접하게 되어 그들을 자주적 능력이 결핍된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게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10]. 비서양국가에 대한 위와 같은 고정관념은 서구의 의미체계가 타자를 원시화함으로써 스스로를 근대화되고 고도로 기술발달을 한 위치, 즉 우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한다[11]. 그 결과 이러한 미개한 나라들은 서양 문명의 지배를 받아야한다는 당위성을 느끼며 식민지 통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린의 작품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양 유럽인들이 식민지 토착민들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하다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한다.

Table 1. Prejudices against Westerners and Asians in *The Quiet American*

Spec.	Western people	Oriental people
nature	good	evil
personality	active	passive
intelligence	superior	inferior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레엄 그린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동양인은 열등하고 지배를 받는 존재로, 서양인은 우월하며 지배하는 인물로 묘사한다. 『조용한 미국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파올러와 파일을 포함하여 프랑스인 트레보 윌슨(Trevor Wilson)과 듀퐁(Dupont)은 모두 서양인으로 작품 속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베트남 현지인들은 백인들의 부속물 또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표현되고 이름을 제대로 나타내지도 않는다. 이들의 인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으며 단지 백인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로 표현될 뿐이다. 이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베트남 경찰이 파올러 집에 찾아와 파올러가 즉시 경찰서로 출두해야 한다고 통보할 때 파올러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으며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말하는 소설의 시작에서부터 알 수 있다. 토속민들에 대한 이러한 인종적인 편견과 차이의 강조는 열등한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을 계몽시켜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명분을 줄 뿐만 아니라 서양 국가들의 베트남 지배를 정당화하는 책략이 된다. 그리고 인종적 차별에 덧붙여서 여성이라는 위치는 또 한 번의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

작품에서 동양은 서양 남성들의 뒤돌린 욕망의 장소로 묘사되며,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 도덕적 타락과 방종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환상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환상은 서양 남성들에게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탐닉하려는 유혹을 가지게 하며, 매춘부가 수 백 명이 되는 사이공 시내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며 퇴폐의 온상인 것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준다[1].

파올러는 베트남 여성 푸엥이 유럽 여성들과 달리 매우 작고 깨지기 쉬워 보살펴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작품 속에서 서양인들은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타자로 인식하면서 지배자인 자신을 남성으로 그리고 지배를 받는 타자를 여성으로 이원화시키고 있다.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는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은 서양인들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작가의 인종적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구별’이 아니라 서로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 ‘차별’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12]. 이러한 사고방식은 서양세계의 지리적 확장, 식민주의 등과 결부된 지배양식이다. 이에 따라 식민주민들은 오로지 지배의 틀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며, 그들 고유의 문화는 무시되고 훌륭한 서양 문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수동적이며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히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작가는 제 3세계에 대하여 항상 성적인

이미지로 연관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의 역사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파올러는 그랑몽드(Grand Monde)라는 댄스홀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는 18세 푸엥을 우연히 만난다. 그는 푸엥이 만약 히틀러가 화제로 나오면 대화를 중단하고 그가 누구냐고 물을 정도로 무식하다고 표현하며 그녀의 무지함을 조롱하고, 그녀가 단지 자신의 성적 파트너에 불과함을 내비친다. 그 대신 파올러는 그녀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한다. 푸엥은 그를 위해 매일 요리를 하며, 파이프(아편을 피우기 위한)를 준비해 준다. 파올러는 “베트남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새를 다루는 것 같다. 그녀는 베개위에서 지저귀고 노래 부른다. 골격 또한 새처럼 연약하다.”[13]라고 말한다. 그는 동양여성을 하등한 동물인 새로 비유하고, 베트남 특유의 말투를 새소리에 비유하면서 여성을 나약하고 무지하며 남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재잘거리는 대상으로 특정 지우고 있다. 푸엥은 이와 같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과거나 감정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그녀의 이러한 침묵은 하위 계층의 또 다른 언어라고 볼 수 있으며, 강요된 침묵 속에서 재현되는 그녀의 모습은 서양 남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복종하는 수동적인 타자로 나타난다[9]. 이는 제국주의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자신을 하나의 주체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을 보여준다. 즉, 푸엥은 동양인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소외를 이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양국가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제 3세계 여성들은 식민지 국가의 국민으로써, 그리고 여성이라는 성차로써 이중적인 차별과 소외를 받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강제된 침묵 속에서 그녀는 서양 남자 파올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에게 복종하는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다. 파올러가 “난 그녀의 몸을 원할 뿐이야.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만이야.”[13]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녀는 단지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온 그에게 밤의 휴식을 주는 사람일 뿐이다.

파올러와 푸엥의 이러한 생활에 부유하고 젊은 미국인 파일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마치 삼각관계와 같은 면모를 보이게 된다. 파일은 푸엥의 매력에 유혹되어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그 또한 푸엥을 하등동물과 같이 본능만을 가지고 있는 저급한 인간으로 생각하며, 서양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종으로 취급한다. 파일의 이러한 인식은 그가 푸엥에게 “출산, 굶주림, 추위 그리고 류마티즘 같은 것 때문에 고생은 하겠지만 우리처럼

사상이나 강박관념 때문에 시달리지는 않을 거요. 그녀는 시들어 갈 뿐, 상처자국은 나지 않을 거요.”[13]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다. 서양의 남성들은 이성적인 사고와 관념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으로 고생하게 되지만, 사고능력이 없는 동양인 여성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느낄 뿐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평생 모르고 살 것이라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식민지 국가의 여성은 무지와 미개의 상징으로 단지 육체(몸)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 대상인 것으로 표현되는 반면 서양 남성은 지적이고 이성적이며 진보된 모습으로 묘사되는 등 동양 여성에 대한 이중적 차별을 확연히 보여준다.

2.2 서양 지배국 남성의 이기심

파올러는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런던 타임스’(London Times)의 특파원으로서 인도차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실상을 본국에 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타성에 젖고 무기력한 그는 외국인의 지위를 유지시키면서 전장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자랑거리인 인물이다. 동생이 백인 서양남성과 결혼을 하여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을 하길 원하는 푸엥의 언니 헤이(Hei)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그녀에게 가정을 꾸려줄 수가 없는 유부남이며 꾸려줄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단지 동양에서의 자유로움과 일탈을 즐기 위해 동양의 무지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파올러에게 베트남 여성 푸엥은 그의 개인적인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대상일 뿐 그녀에 대한 그의 책임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파올러의 행동은 남성들의 무의식속 여성에 대한 멸시와 혐오를 내포하고 있는 남성우월주의 이데올로기의 결과이다. 그리고 억압받고 착취 받는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남성우월주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러한 젠더 불평등과 차별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푸엥과의 불확실한 연인관계를 지속해오던 파올러에게 파일의 등장은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푸엥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파일은 파올러가 푸엥을 단순히 소유하고 있을 뿐 그녀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비난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파올러에게 푸엥은 그와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그가 소유할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는 존재이며,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이러한 소유의식은 질투와 무관하지 않다[14]. 푸엥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파올러가 파일을 질투하여 결국 그를 죽

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도 이러한 소유의식과 질투의 맥락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일의 지적으로 인해 파올러는 푸엥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영국에 있는 아내와의 미루었던 이혼을 하려고 결심한다. 그는 아내에게 푸엥을 잃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는 죽음의 시초와도 같으며 이혼을 요청한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는 답장을 보내고 파올러는 이러한 사실을 푸엥에게 거짓으로 말함으로써 파일에게 그녀를 빼앗기게 된다. 파일에게 푸엥을 빼앗긴 파올러는 마치 식민지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노련한 영국이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강국 미국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것과 같은 모멸감을 느낀다.

수중폭파와 관련한 세계 최고 권위자인 헤롤드 파일(Harold C. Phyle)의 아들인 파일은 하버드 출신으로 젊고 열정적인 엘리트이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이상주의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념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판단을 무조건 믿음으로써 비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대에 대한 몰이해는 푸엥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때도 나타난다. 그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감정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는 무모함을 보여주며, 자신이 친구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파올러와 동거 중인 여인 푸엥에게 청혼을 할 때도 파올러에게 자신이 하는 말을 통역하여 푸엥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다. 파일은 파올러가 없는 동안 푸엥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파일의 어리숙하고 순진한 태도는 “푸엥이 우리 두 사람 중에서 고르지만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공정하겠죠.”[13]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분명해진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영역을 선택의 문제로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는 순수함을 넘어 경험이 부족한 미숙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끝내고 나니 기쁘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을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자신과 파올러가 친구사이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느낄 정도로 이기적이다. 이러한 그의 타인에 대한 몰이해는 베트남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 이념만을 실현하기 위해 강행하는 그의 행동으로 불행한 결말을 예상하게 한다.

파일은 자신이 푸엥을 보호하고 결혼을 통해 안정된 미래를 약속해 줄 것이기 때문에 영국에 아내가 있는 파올러와의 일시적인 관계를 끝내고 자신과 결혼하는 것이 나온 결정이라는 명분으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지에 관

계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는 비이성적이며 무지하다. 그의 정신이상적인 이러한 순진성은 경험의 부족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순진성이다[4]. 푸엥과의 연애만을 즐기는 파올러와 달리 파일은 그녀와 정식으로 결혼하여 미국에서 생활할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꿈꾸는 파일의 생각에는 여전히 푸엥을 식민지 하층민으로 여기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베트남의 지저분한 거리에서 비위생적인 정육점에서 고기값을 깎으려는 푸엥이 미국의 깨끗한 가게를 보면 좋아할 것이라고 상상을 한다. 또한 미국에서 겪게 될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 여성 사교클럽의 카드놀이를 가르칠 계획도 세운다. 그리고 냉장고와 혼자 타고 다닐 차를 주고 최신식 텔레비전을 줄 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가질 아이 등 그녀에게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며 파올러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생각하는 결혼이란 동등한 위치의 두 남녀가 만나 생활하는 것이 아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한 여성을 교육시켜서 서양문명에 동참시키는 일종의 선행과도 같은 것이다. 즉 자신이 어렵고 힘든 동양 여성을 구원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는 그녀와의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며 이 또한 자신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이기심의 결과이다. 결국 Table 2와 같이 파올러와 파일이 가지는 서양남자의 이기심은 내용만 살짝 다를 뿐 푸엥을 무지한 하층민으로 보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Fowler and Pyle's selfishness toward Phung

Spec.	Fowler	Pyle
a view of Phung	considered only his won sex partner because she is ignorant	considered to be educated because she is ignorant
about marriage	no intention of getting married and only trying to maintain a relationship	want to get married and live together in America
about love	to maintain an informal relationship and provide her with a comfortable haven	to free the poor from her lives and making her approach Western culture

파올러는 이러한 파일을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노는 어린 아이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를 순수하고 낭만적인 청년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정신이상자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가 “진지하고 조용한 미국인”[13]이라고 그를 떠올리며, 자신은 파일을 친자식처럼 사랑했다고도 말한다. 이는 파일의 죽음 이후 자신에 대한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정당화는 파일이 죽은 후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푸영이 자신의 곁에서 잠이든 모습을 보면서 “과연 파일을 진정으로 생각해 준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란 말인가?[13]”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모습에서 극에 달한다. 아편에 취한 그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스스로를 위한하는 뻔뻔함을 보인다. 파일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파일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푸영을 결국에는 자신이 차지했다는 승리감을 보여주는 인상을 풍긴다.

2.3 젠더 불평등과 사랑

버틀러(Judith Butler)는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이성애 중심적 권력 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성이라는 정체성 범주를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한다[15]. 여성과 남성의 구분에서부터 이미 젠더적 차별과 불평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젠더적 차별과 불평등은 『조용한 미국인』에서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작품 속에서 여성은 타자적 열위에 위치하며, 무지와 무능 그리고 의존성을 가지는 존재이고, 여성의 신체가 돈과 결부되는 이미지를 재현시키고 있다. 자본과 남성이라는 중심적 존재로부터 억압받는 젠더적 약자로서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여성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따라서 작품에서 푸영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두 남성은 젠더적 강자들이며, 이러한 젠더 불평등한 관계에서 유지되는 남자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파울러에게 푸영은 아편을 준비해 주고, 자신의 부인 대신 성욕을 채워주는 잠자리 대상일 뿐이었고 그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 감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아니다. 즉, 그녀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남성에게 복종하며 오로지 남성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파일이 푸영을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그는 그녀가 꽃처럼 신성하게 보인다고 말하며, 클럽 댄서에 불과한 그녀를 귀하게 여기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하여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생활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 대학 교수인 자신의 아버지 댁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등 그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이 또한 서양의 남성이 동양의 여성을 문명화 세계로 인도하는 구원자

내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그는 민감한 결혼 관계를 단순한 자본의 논리로 풀려 하고 사랑마저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천박한 배금주의자이다 [9]. 게다가 파일이 푸영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할 때 그의 말을 파울러가 통역을 해주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데, 여기에서 파일과 푸영은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둘의 관계가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파일을 보면서 파울러는 그가 현실감각이 없고 순진한 이상주의자적인 사랑이라면서 “1달러의 사랑”[13]이라고 폄하한다. 이러한 사랑에는 선의와 깨끗한 양심이 따르지만 자신의 사랑에는 어떤 의도가 없다고도 말을 한다. 그리고 파울러는 파일에게 푸영을 빼앗긴 뒤 파일이 죽은 후에 다시 그녀를 차지하게 되자 그제 서야 그녀를 “살아있는 동반자”[13]라고 표현하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남성들과 정서적 교감을 가지거나 진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건 푸영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인다. 두 남자의 애정 공세를 받는 푸영은 파울러의 이혼이 성사되지만 바라고 있다가 파일의 등장으로 인해 미국의 고층빌딩에서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꾼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의 말에 휘둘려 파울러에게서 파일에게 갔다가 파일이 죽은 후에 다시 파울러에게 돌아오는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작품을 전체에서 푸영에 대한 묘사는 단지 그녀가 예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무지하고 부유한 서양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삶이 풍요롭고 자유로워지기만을 바라는 그녀의 이미지는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마치 노예처럼 전락하게 된 제 3세계 여성을 대표한다. 이러한 인식은 푸영의 언니 헤이의 태도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녀는 부모 없이 자란 동생을 서양인과 결혼시키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따라서 그녀는 줌과 부정의 냄새가 풍겨오는 듯한 베트남 거주지를 떠나 산고, 추위, 배고픔, 류머티즘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서양남자와의 결혼을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처음 보는 서양남자와 결혼 얘기를 주고받는 그녀에게서 그들이 서양남자와의 결혼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베트남 여성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식민지 국가의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식민지 국가의 여성으로써의 차별과 함께 여성 자신의 고유한 면을 인정받지 못하고 강대국 백인 남성에게 성적으로 이용당하는 등 젠더적으로 불평등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의 주체적인 역할은 외

면한 채 그저 남성들 사이에서 쟁취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의 역할만을 보여준다. 또한 푸엥과 그의 언니 헤이에게서 볼 수 있듯이 여성 자신들도 독립적인 하나의 주체로 살아가지 못하고 남성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용한 미국인』은 작품 전체를 통해 동양 여성 푸엥은 무지하고 서양 남성을 통해 편한 삶을 동경하는 부정적인 묘사로 일관한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들도 있다. 엘렛(Miriam Allott)은 푸엥이 작품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너무 단순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녀가 파올라에게 아편을 준비해주고, 잠자리를 통해 기쁨을 주는 것 이외에 파올라의 감정을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그가 행동하는 인물로 변모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16]. 또한 쿨쉬레썸(J.P.Kulshrestha)도 파올라가 적극적인 행동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푸엥과의 관계가 결정적이었다고 보면서 그녀를 불가피한 존재로 보고 있다[17]. 즉, 푸엥에 대한 파올라의 사랑이 그가 그동안 꺼려왔던 정치 관여의 행동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라이벌인 파일의 죽음을 결과적으로 가져왔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무지하고 미성숙한 여성으로 표현된 것은 남성인 파올라와 파일이 만들어낸 이기적인 시각인 것이다. 이러한 편협한 시각은 여성을 제 3자로 취급하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하기 위한 젠더 불평등한 시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사이에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작품의 후반부에서 푸엥이 다시 파올라에게 돌아오게 됨으로써 동양의 식민지 여성은 결코 서양남성과의 관계에서 젠더적 열위의 위치에 있음을 즉, 젠더적 불평등한 관계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3. 결론

그레엄 그린의 소설 『조용한 미국인』은 제국주의의 각축장이었던 베트남을 배경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독재정치가 이루어지며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식민지의 실상을 묘사하였다. 작가는 이러한 제 3세계를 묘사할 때 기본적으로 유색인종인 베트남인들보다 서양인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적 차별에 더하여 여성이 처한 이중적 차별과 불평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서양강국들은 열등한 식민지 국가를 계몽시키고 근대

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베트남 지배를 정당화하며, 가난한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춘부로 전락하게 된 도시를 퇴폐의 온상으로 여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용한 미국인』에 표현된 동양 여성 푸엥의 젠더적 불평등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남성 주인공에 비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여주인공인 베트남 여성 푸엥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서양남자와의 결혼을 희망하고 이러한 그녀에게 파올라라는 영국의 나이 많은 유부남이 나타나 이들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한다. 하지만 그는 푸엥에게 결혼을 통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고, 단지 잠자리를 같이 하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수동적인 타자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양의 식민지 국가 여성은 기본적으로 무지하며, 남성의 즐거움이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대로 표현되는 등 불평등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푸엥과 파올라 사이의 삼각관계 양상을 보이며 등장한 미국의 부유하고 젊은 청년 파일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순진성을 가진 인물로 푸엥에게 결혼을 통해 안정된 미래를 약속해 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역시 푸엥이 서양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저급한 인간 취급을 하며 육체적 고통으로 고통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평생 모르고 살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가 약속하는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의 두 남녀가 만나 생활하는 것이 아닌 가난한 나라의 여성을 교육시키고 서양문명의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해주는 일종의 선행과도 같이 여긴다. 따라서 이 또한 자신이 선행을 베푸는 자비로운 사람이라 여기는 이기심의 일종이며, 여성을 남성이 가르치고 보살피야만 한다는 불평등한 차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다.

식민지 국가의 동양 여성은 신체가 돈과 결부되는 이미지를 재현시키고 있으며, 자본과 남성이라는 존재로부터 억압을 받는 젠더적 약자로 표현되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파올라와 파일은 젠더적 강자들이며 이러한 젠더 불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사랑은 또한 불평등한 관계를 이어가는 연장선에 불과하다. 푸엥 또한 남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닌 단지 자신의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구출해주는 구원자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그들과의 결혼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수동적이고 열악한 타자의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푸엥이 파올라의 감정을 이끌어 그가 행동하는 인물로 변모하게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그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

들도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그녀가 무지하고 미성숙한 여성으로 표현된 것은 남성인 파올러와 파일이 만 들어낸 이기적인 시각일 수도 있다. 이러한 편협한 남성들의 시각은 여성의 주체적인 역할을 외면하고 단순히 남성들 사이에서 쟁취하고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무시하기 위한 젠더 불평등한 시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젠더 불평등한 관계에서 남녀의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작품의 후반부에 푸영이 다시 파올러에게 돌아오게 됨으로써 동양 여성의 이러한 젠더적 불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배를 하는 세력인 서양 남성에 비해 지배를 받는 동양여성은 젠더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젠더불평등이 작품 속에서 자세히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젠더불평등은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과 이기심에 의해 극대화되었다. 소설에서 표현된 동양여성에 대한 젠더불평등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특정한 한 작가의 한 작품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거의 작품들 뿐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젠더불평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 앞으로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계속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1] S. S. Kim, "Re-reading *The Quiet American* from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58, No.1, pp.66-91, 2014.
DOI: <https://doi.org/10.1007/s00163-010-0086-1>

[2] J. E. Lee, "Graham Greene's *The Quiet American*: An Exploration of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37, No.1, pp.53-73, 2011.
DOI: <http://doi.org/10.21559/aellk.2011.37.1.008>

[3] Y. D. Kang, "The Rational Life and the Restoratin of Emotion in *The Quiet American*", *The Journal of English Education*, Vol.19, No.-, pp.297-318, 1999.

[4] Y. D. Kang, "Imperial Conflicts and Confusion Between Intelligence and Sensibility in Graham Greene's *The Quiet America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9, No.5, pp.1-10, 2018.
DOI: <http://doi.org/10.22143/HSS21.9.5.1>

[5] H. A. Cho, "Understanding The Third World in Graham Greene's *The Quiet American*", *Studies 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26, No.1,

pp.337-355, 2000.

[6] J. S. Choi, "Graham Green's *The Quiet American*: The Anguish of a Rational Man",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49, No.3, pp.129-151, 2005.

[7] A. J. Park, "Graham Greene's Novel and Postcolonialism", *The Journal of Mira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12, No.1, pp.177-189, 2007.

[8] C. B. Hwang, "Graham Green's *The Quiet American*: Intertextuality of the Changed Theme", *The Journal of English Education*, Vol.39, No.-, pp.146-164, 2009.

[9] H. S. Tae, "The 'Body' in Black Feminist Theories", *The Korean Society for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Vol.9, No.1, pp.210-230, 2001.

[10] G. Greene, *Ways of Escape*, Random House, 2011.
DOI: <https://doi.org/10.2307/40136418>

[11] R. Chow, Translated by J. S. Jung, *Primitive Passions: visibility, sexuality, ethnography, and contempora*, Yeesan, 2004.
DOI: <https://doi.org/10.2307/1399915>

[12] E. Said, Translated by H. G. Park, *Orientalism*, Kyobo Book Centre, 1991.
DOI: <https://doi.org/10.1037/e534652004-001>

[13] G. Greene, *The Quiet American*, Penguin Books, 1991.

[14] J. H. Kim, "The Discourse of Misogyny and Men's Possessive Consciousness of Men in *Othello*", *Shakespeare Review*, Vol.34 No.-, pp.171-194, 1998.

[15] J. Butler, Translated by H. J. Cho, *Gender Trouble*, Munhakdongne, 2010.
DOI: <https://doi.org/10.4324/9780203902752>

[16] A. Miriam, "The Moral Situation in *The Quiet American*", *Graham Greene: Modern Critical View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17] J. P. Kulshrestha, "Graham Greene: *The Heart of the Matter*", *An Introduction to English Novel 2*, LaVergne, TN: Nord Press, pp.172-174, 2009.

류 다 영(Da-Young Ryu)

[중신회원]



- 2000년 2월 : 성균관 대학교 교육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7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영미소설, 영미드라마, 영어교육, 문학과 치유, 문학과 젠더